‘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거대한 중국의 움직임에 주목하라

‘정글만리 1~3’ 조정래 지음

국내외 내로라하는 작가들의 ‘소설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조정래(70) 작가가 가세했다.

그동안 조정래 작가는 선 굵은 소설을 써왔다.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은 근현대사의 비극을 사실적으로 그린 수작이다. 작가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100년에 걸친 곡절의 역사를 특유의 시각으로 풀어냈었다.

이번에 펴낸 장편 ‘정글만리1~3’은 소설의 무대가 중국이다. 14억 인구를 거느린 중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G2)으로 발돋움한 변화를 추적했다.

작가는 지난 3월 말부터 7월 초까지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연재한 내용을 책으로 묶어냈다. 미국, 중국 등 외국 독자들까지 조회수가 1200만회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제목이 암시하듯 ‘정글만리’는 양육강식이 지배하는 ‘정글’과 만리장성의 ‘만리’가 결합된 말이다. 강자와 가진 자만이 살아남는 중국의 모습을 상징한다.

작가는 작품을 쓰게 된 이유를 지난 90년대 취재차 중국에 가서 느낀 변화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80년대와는 사뭇 달라져버린 중국의 모습에 일대 충격을 받는다. 우리 나라가 라면 하나씩만 팔아도 10억 개인 80년대의 중국이 아니었다.

“그때 왜 소련은 몰락했는데 중국은 건재하는지 그 이유를 확인했다. 그 발견과 함께 중국을 무대로 새 소설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일었다.”

소설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한국, 일본의 상사원과 중국 기업인 및 관료, 한국 유학생, 의사가 서사의 중심축을 담당한다. 그 가운데 40대 중반 한국 상사원 전대광과 그의 조카이자 유학생인 송재형의 비중이 크다.

이야기는 전대광이 한국에서 온 성형외과 의사 서하원을 상하이 공항에서 맞이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갑작스런 의료사고로 중국으로 오게 된 서하원은 전대광의 든든한 후원자인 세관 샹신원의 의뢰로 재기를 노린다.

중심인물들은 소설 주제를 견인하기 위한 장치의 하나로, 전형성을 띤다. 전재광, 서하원은 양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대도시에서 오로지 성공을 위해 돌진하는 인간군상이다. 한마디로 이들은 ‘꽌시(關係)’라 불리는 연줄 없이는 옴짝달짝할 수 없다.

샹시원은 중국 공산당 고위관료의 부정부패를 드러내기 위해 설정된 인물이다. 반면 송재형은 지식인의 눈에 비친 중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인물로 상정됐다.

중심 인물들의 갈등 기저에는 성공신화에 매몰된 자본주의 세태가 담겨 있다. 인명경시의 세태, 대도시의 빈민으로 전락한 농민들의 모습도 녹아 있다. 모두 과속 성장이 낳은 폐해다.

“이제 머지않아 중국이 G1이 되리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중국이 강대해지는 것은 21세기의 전 지구적 문제인 동시에 수천 년 동안 국경을 맞대온 우리 한반도와 직결된 문제이다. 중국인들이 오늘을 이루어내는 동안 겪은 삶의 애환과 고달픔도 우리의 경험과 다를 게 무어랴. 그 이야기를 두루 엮어보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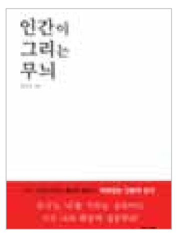
〈해냄·각권 1만35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자신만의 순수한 욕망에 충실하라

‘인간이 그리는 무늬’

최진석 지음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무늬가 있다. 자신만의 독특한 무늬를 그려라.”

EBS 인문학 특강을 담당하고 있는 신안 하의도 출신 최진석 교수(서강대 철학과)는 인문학이란 ‘인간이 그리는 무늬’를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강조한다. 최근에 최 교수가 펴낸 ‘인간이 그리는 무늬’는 교양이나 지식 차원이 아닌 생존을 위한 도구의 차원에서 인문학을 바라본다.

저자에 따르면 인문학적 사고는 지식이나 개념이 아닌 개인의 독자적이고 열린 자세에서 획득된다. 한마디로 주체적 삶이 인문학의 토대라는 것이다. “자기가 자기로 존재할 때에라야 비로소 인문적 통찰의 첫 걸음이 시작된다”는 관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기가 자기로 존재할까? 최 교수는 자신만의 순수한 욕망에 충실한 인간이 되라고 주장한다. 원초적 욕망에 충실한 인간이 곧 ‘덕’이 있는 인간이자, ‘덕’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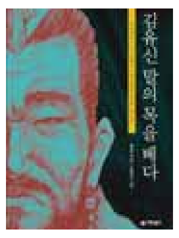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개념의 구조물인 이념에 지배되지 않고, 피가 통하고 몸이 살아 움직이는 활동성을 위주로 한다는 것이죠. 활동하게 한다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이 힘이 바로 욕망이며 덕이며 개성이며 기질이며 감각입니다. 우리는 이념이나 가치관 혹은 신념의 대행자가 아니라, 비로소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소나무·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숨겨진 김유신 이야기… 그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김유신 말의 목을 베다’

황 윤 지음



역사 속에서 새로운 주제를 발탁, 이색적인 글쓰기를 해온 역사 작가 황윤이 ‘김유신 말의 목을 베다’를 펴냈다.

삼국을 통일한 김유신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이번 책은 글, 그림, 고증을 바탕으로 한 역사서다. 그러나 일반적인 역사책이 아니라 중간 중간 액자소설 방식을 가미해 ‘역사책은 읽기 어렵다’는 기존 인식에 도전한다.

책은 크게 김유신 일대기를 그린 ‘초년기’, ‘중년기’, ‘원숙기’, ‘말년기’ 등 네 시기로 구성됐으며 흥미를 끌기 위해 일러스트를 삽입했다. 저자는 김유신과 김춘추와의 인연, 최고의 관직인 태대각간이 되기까지의 과정 등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를 파헤쳐나간다.

한편으론 김유신의 감추고 싶은 인간적인 면도 들여다본다. 15~18세에 술과 기녀를 즐겼던 김유신이 이를 끊고자 말의 목을 벤 일화와 가야계 출신이라는 신분적 제약을 넘고자 정략적으로 중심부에 접근했던 이야기도 풀어낸다.

저자는 책을 쓰게 된 계기가 김유신의 묘를 살피던 중 비석에 새겨진 왕과 왕비의 무덤을 뜻하는 ‘능(陵)’이라는 글자가 물에 젖어 ‘묘(墓)’로 변하는 모습을 보고서였다고 한다. 일설에 1934년 김유신의 후손들이 비석을 새로 만드는 중 묘로 쓰인 부분을 시멘트로 바르고 능으로 바꾸며 생긴 현상이라는 것이다. 능과 묘 사이의 간극을 해석하는 것이 이 책을 읽는 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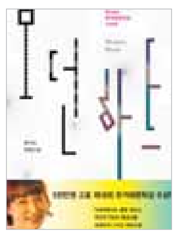
〈어드북스·1만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욕망에 갇힌 현대인들 풍속도

‘모던 하트’

정아은 지음



2013년 제18회 한겨레문학상 수상작 정아은씨의 장편소설 ‘모던 하트’가 출간됐다.

모던 하트는 서른일곱, 헤드헌터로 일하고 있는 김미연의 삶을 통해 대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연인과 직장의 풍속도를 생생하게 그려낸 세태소설이다.

주인공은 학벌이라는 낙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철저한 계급사회에서 발버둥치며 살아간다. 출신대학에 따라 사람을 분류하고 차별하는 것이 회사 조직에서는 물론, 연애와 결혼 같은 개인의 삶과 인물의 내면까지 확고하게 지배하는 현실을 솔직하고도 세세하게 묘사한다.

총 252편의 경쟁작 가운데 예심 심사위원들의 추천과 본심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우리 주변의 평범한 샐러리맨의 세태를 안정된 문장력으로 생생하게 반영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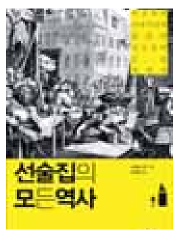
〈한겨레출판·1만2000원〉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선술집 ‘창’을 통해 본 유럽 역사

‘선술집의 모든 역사’

시모다 준 지음



선술집은 범죄와 악의 소굴인가, 아니면 시민의 열린 공간인가.

지금까지 이야기되지 않았던 선술집에 얽힌 세계사를 이야기 한 책 ‘선술집의 모든 역사’가 출간됐다.

현재 일본 국립 우츠노미야대학 교육학부 교수로 재직중인 저자 시모다 준은 선술집의 ‘창’을 통해 유럽 역사의 살아있는 현장과 그 특징을 엿볼 수 있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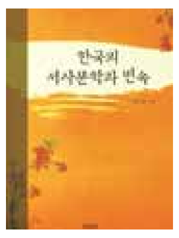
책에는 16세기에 일어난 독일농민전쟁과 18세기에 일어난 프랑스혁명이 선술집에서 시작된 배경과 함께 농민과 혁명가들이 선술집에 모여 혁명을 계획하고 민중에게 동참을 호소한 이야기, 때로는 사창가이기도 했고 은행과 재판소이기도 했던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또 외과 의사가 선술집에서 수술을 하기도 했다는 이야기, 히틀러가 선술집에서 연설을 하면서 나치스가 시작된 이야기까지 선술집에 얽힌 여러 이야기들이 흥미를 유발한다. 〈어젠다·1만3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신화, 인간의 출현·현실적 삶·죽음을 밝힌다

‘한국의 서사문학과 민속’

김수중 지음



김수중 조선대 국문과 교수가 ‘한국의 서사문학과 민속’을 펴냈다. 책은 그동안 발표한 논문과 강연 원고를 보완해 묶은 것으로 한국의 신화, 소설, 민속 세 영역에 관한 20편의 글이 실려 있다.

저자에 따르면 한국의 신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퍽 인간적이라고 한다. 인간의 존재와 관련해 가장 근본적으로 제기되는 인간의 출현 문제, 현실적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골고루 밝혀주기 때문이다.

소설에 있어 서사문학의 주체가 신화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즉 우리 민족 문학의 원형질인 신화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닌 인간화를 구현하기 위한 서사 총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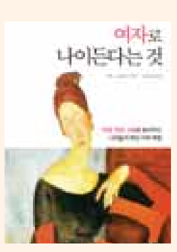
김 교수는 이러한 신화를 신학과 연계, 학문간 통섭을 시도한다. 장로회신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바 있는 저자는, 신학의 기저에는 우리 신화의 근간인 ‘인간화’라는 덕목이 비중있게 제시되어 있다고 강조한다. 오늘날 인간성 상실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사문학이 신학의 정신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회갑이나 정년이 되면 제자와 지인들이 논문집을 출간해주는 관행 대신 회갑과 정년 사이에 내 글을 묶어 학계에 내보일 생각이었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져 기쁘다”며 “이 책으로 제자들과 토론하고, 그동안 추구해온 학문적 결실에 대해 학계의 질정을 겸허히 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보고사·2만7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신간

▲B급 문화, 대한민국을 습격하다=‘싼티·촌티·날티’를 내세우는 B급 문화 코드가 국내 대중문화계를 강타했다. 10년 넘게 영화 담당 기자로 독보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헤럴드경제’ 이형석 기자가 ‘왜 대중들이 싼티, 촌티, 날티에 열광하게 되었는지’를 심도깊게 파헤쳤다. B급 문화로 읽고 보는 대한민국의 진풍경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첫 시도라 할 수 있다. 〈북오션·1만5000원〉



▲여자로 나이든다는 것=교육학 박사이자 심리치료사로 일해온 앤 G. 토머스가 다양한 문화권에서 전해 내려오는 주옥같은 민담과 전설, 신화 중에서 특별히 의미심장한 것들을 선별해 소개하면서 그 속에 감춰진 상징을 풀어낸다. 카를 구스타프 융의 분석심리학을 바탕으로 해 옛 이야기들과 자신의 임상 경험 사례들을 들려주면서 여자로 나이드는 것의 여섯 가지 여정과 지혜를 친절하게 안내해 준다. 〈열대림·1만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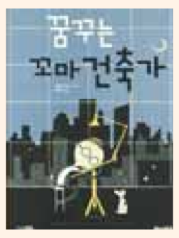
▲마르크스, TV를 켜다=마르크스 생전에는 TV나 영화가 존재하지 않았다. 당대의 비평가이기도 했던 마르크스가 지금 살아 있다면 TV, 영화 혹은 다큐멘터리들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논평하고 정리했을까? 브르넬 대학교 마이크웨인 교수는 책에서 마르크스에서부터 출발해 오늘날의 복잡한 미디어 현상들을 설명하고 문화텍스트들을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한울·3만6000원〉

▲대한민국에 건축은 없다=한국건축계에 대담한 화두를 던진 책. 건국대 이상헌 객원교수는 ‘건축이란 무엇인가?’에서 인류 문명사에서 건축은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는지 그 정체성을 확인한 후, ‘한국에 건축은 없다’에서 건설만 존재할 뿐 건축이 부재(不在)한 한국사회의 현실을 날카롭게 파헤친다. 마지막 장인 ‘한국에 건축은 있다’에서는 한국건축이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한 대안을 제시한다. 〈효형출판·1만6000원〉

▲아인슈타인, 시간 여행을 떠나다=동서양 사상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철학자들의 사상을 한 편의 소설로 풀어낸, 청소년을 위한 교양 소설 시리즈이다. 특수상대성이론에서 일반상대성이론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앎의 기쁨’을 최상의 경지까지 맛보게 하는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를 복잡한 수식 없이 소설로 들려준다. 〈탐·1만원〉

▲음식 없이 나를 위로하는 50가지 방법=스트레스와 모든 감정을 음식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실용적인 심리 힐링서. 사람들이 음식의 덫에 빠지는 이유와 음식을 먹는 일이 그토록 유혹적이며 위로가 되는 이유들도 살펴본다. 심리적인 이유로 음식 먹는 습관을 없애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다. 아울러 그런 습관을 없앨 수 있는 실용적인 해결책 ‘50가지 자기진정법’도 제시한다. 〈전나무숲·1만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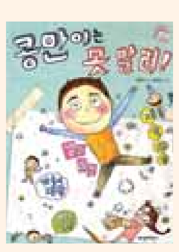
어린이 책꽂이



▲꿈꾸는 꼬마 건축가=세계 3대 미술관 중 하나인 뉴욕 현대미술관 출판부에서 기획한 그림책. 건축가를 꿈꾸는 꼬마 프랭크가 할아버지와 함께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건축물에 대해 살펴보고 자유로운 건축의 발상과 건축의 범위, 건축의 재료에 대해 느끼고 깨닫는 이야기가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한다. 〈주니어RHK·1만3000원〉

▲꼭두와 꽃가마 타고=한국의 전통 문화 ‘꼭두’를 소재로 한 이야기그림책. 할머니와 꼭두의 외롭지도 무섭지도 슬프지도 않은 저승길 여행을 통해 꼭두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자연스레 알게 해준다. 또 죽음에 대한 조상들의 생각과 우리 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한림출판사·1만2000원〉

▲내 잘못 아니야=좋은 습관 길러주는 생활동화 시리즈. 모든 일에 핑계만 대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아이. 학교에 지각하는 것은 학교가 언덕에 있어서이고, 숙제 공책을 안 챙긴 것은 엄마 때문이라니… 모든 일에 핑계를 대고 남의 탓을 하는 재룡이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 준다. 〈스콜라·8500원〉



▲콩만이는 못 말려!=달라도 너무 다른 콩만이와 인영이의 좌충우돌 우정 일기. 콩만이는 부모님과 선생님이 흔히 말하는 정신없고 주위가 산만한 아이이다. 작가는 콩만이와 짝꿍 인영이가 쓴 ‘별난 콩만 일기’를 통해 콩만이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인영이와 콩만이가 진정한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보여준다. 〈파란자전거·8500원〉

▲재채기 대장 재재=몸집이 작고 귀여운 아기 판다 재재는 재채기를 할 때면 여느 어른 못지않다. 한 번 재채기를 할 때마다 토네이도가 지나간 것처럼 사방이 쑥대밭이 된다. 작가는 자그마한 아기 판다가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킨다는 다소 과장된 내용을 통해 아이들에게 은근한 즐거움과 해방감을 갖도록 한다. 〈현북스·1만2000원〉